

# 趙 信 衡 議 員

“저탄소 녹색성장”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입니다

서구 제4선거구

한나라당 서구 제4선거구 조신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환경이 화두가 된 지금,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지구 온난화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앞장설 것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저탄소 사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야흐로 ‘녹색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 흐름에 맞서 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  
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  
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더 이상 선택의 문  
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인류 공동체가 반드시  
구현해야 할 생존전략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  
서가는 친환경도시 ‘그린시티 대전’ 이미지 구축에 다  
가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주시길  
당부하면서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워포인트에서 설명하였듯이 저탄  
소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린시티  
대전’에 걸맞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  
너지 시설이 설치된다면 대전은 생태환경도시로서  
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광  
객을 유치함으로써 대전시의 경제 활성화에 일  
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유기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을 위해 개별시설물에 대한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개별 방식으로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많은 예산의 과다 투입 및 설치 후 민원야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대전시가 추구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물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통합 처리하여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에코시티 대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시설물 운영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